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마침내 ‘첫삽’

12월 5일 기반시설 공사 착공식… 내년부터 정부지원시설 단계적 건립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마침내 첫삽을 뜬다. 부산항만공사는 오는 12월 5일 우암부두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 기반시설공사는 내년 10월까지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및 부지조성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암부두는 경기침체 등으로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선타부두와 통합운영하면서 사실상 유향되었다.

이에 유향항만의 기능 재배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간 융·복합 발전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17년 12월 우암부두가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아무런 진척이 없어 지난 9월초 지역주민들이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추진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의 정부지원시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2020년 총사업비 274억원을 들여 지상 7층 규모의 해양 신산업에 특화된 임대형 지



식산업센터 건립을 시작한다. 이어 2021년에는 총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해 마라나 선박 수리·매매·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센터인 마라나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또한, 수소·전기 등 신연료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 추진을 위해 우암부두 내에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R&D 플랫폼센터도 추진

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정부지원시설이 들어서면 미래시장 진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 내 마라나 선박, 부품, 용품, 서비스 거래 등으로 연간 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창업 기업육성, 대외기업 유치로 500개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 사업규모 : 우암부두 17만8,679㎡에 기반시설, 지원시설(관리동, 연구동) 조성
 *요트, 보트산업 및 첨단해양플랜트업 유치

■ 총사업비 : 277억4000만원 (국비 61억원, 시비 60억원, BPA 155억원)

건립 예정 부두 내 정부지원시설

■ 부산 마라나 비즈센터(5층, 480억원)
 마라나 선박 수리·매매·교육·품질평가 등 원스톱 서비스센터 조성

■ 부산 남구 지식산업센터(7층, 274억원)
 해양 신사업 집적(50개실), 지원시설 등

■ 수소연료 선박플랫폼 구축(5층, 381억원)
 IMO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수소, 전기 등 신연료선박에 대한 선제적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시장 선점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간 400명의 인력양성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인근 지역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된다. ☎607-4472

남구,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재정인센티브 1억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남구가 또 다시 부산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재정인센티브 1억원 및 포상금도 받게 됐다. 이로써 남구는 지난 2017년 이래 3년 연속 최우수구에 선정되는 눈부신 쾌거를 이뤘다.

이번 정부합동평가는 5대 국정목표, 123개 정량지표 중 73개 지표(부분지표 제외) 실적을 대상으로 온라인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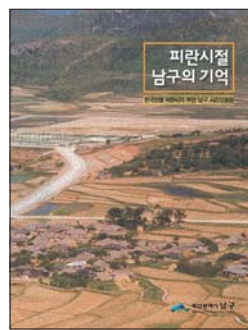
가와 현지 확인·검증 등을 거쳐 결정됐다. 행정 전 분야의 업무수행 성과를 가능하는 공신력 있는 정부합동평가에서 남구가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은 것은 구정 주요 부분의 업무 성과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임을 인정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남구는 워크숍 개최와 추진실적 수시점검,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등 실적향상을 위해 평가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했다.

남구의 눈으로 본 격동의 현대사

내년 6.25 70주년 맞아 ‘피란시절 남구의 기억’ 책자 발간

희귀사진 350여점…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명단 최초 수록

내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남구가 지역의 눈으로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갈무리한 책자를 발간한다. ‘피란시절 남구의 기억’으로 이름 붙여진 이 책자는 1950년 6.25전쟁 발발부터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까지



간 우암동장을 지낸 92세 박기출 씨 등 26명의 마을 원로들의 구술을 채록해 여태 잘 알려지지 않은 유엔기념공원 조성 과정 등 ‘6.25의 비사’를 담았다.

이번 책자의 눈부신 업적으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2,297명의 전사자 명부를 꼽을 수 있다. 책은 77쪽을 할당해 전사자의 성명, 계급, 소속 부대, 사망일자 등의 자세한 정보를 국가별로 실었다.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전체 명부가 책자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1951년 묘지 조성 이후 처음이다.

책자 발간을 기획한 문화체육과 김용민 과장은 “6.25는 잊혀지지 않는 전쟁”이라며 “피란시절 남구의 기억”은 남구와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록으로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삼정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책자는 12월 중순 1,000부를 인쇄해 전국의 도서관 등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607-4060

〈관련기사 6~7면〉

오륙도관광도 최첨단 시대… 5G VR홍보관 개관

〈가상현실〉

관광안내소 1·2층 무료 운영
 스마트 사이니지 등 설치

부산의 대표 명소 오륙도의 관광패턴이 5G기술로 새롭게 거듭난다. 오륙도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5세대 이동통신에 기반한 VR미디어 홀

보관이 최근 문을 열었다. 안내소 2층에는 바다, 관광, 크로마키(포토존) 등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 관광체험관이 들어섰다. 1층에

는 360도 CCTV와 가로 5.4m, 세로 1.2m의 실감형 스마트 사이니지(Signage·대형스크린)도 운영된다. 홍보관 이용은 무료이다.



제2국민체육센터, 우암동 복합청사, 남구청 별관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

국비 66억 확보… 2023년 완공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통해 남구의 굵직한 속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남구는 제2국민체육센터, 우암동 복합청사 건립 등 3건의 복합화 사업을 신청했으며 최근 3건 모두 선정돼 66억 3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원액

규모로는 부산에서 가장 많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남구는 주민과 밀접한 일상생활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백운포체육공원 옆에 들어설 제2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 외에 작은도서관 등을 갖춘 생활밀착형 체육플랫폼으로 건립된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22년을 완공 목표 하고 있다.

기존 우암동행정복지센터를 대신할

우암동 복합청사는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아우르는 지상 6층 규모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기존 과밀한 구청사의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남구청 별관은 지상 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들 사업은 2020년부터 향후 3년간 국비를 순차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구비로 충당된다.

사랑의 온도탑 여러분이 올려주세요

■모금기간
 2019. 11. 20.~2020. 1. 31.
 ■성금(품) 접수
 ▶구청 주민지원과 동행정복지센터 등

■성금 사용 용도
 ○저소득주민 생계비, 의료비
 ○사회복지기관 프로그램 지원
 ○난치병 아동 의료비지원
 ○설·추석 명절 지원사업,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성금 문의
 남구청 주민지원과(☎607-4865), 동행정복지센터

■입금계좌 : 부산은행
 315-01-000297-0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마워요 남구청” 스웨덴에서 온 편지

“몇 년에 걸쳐 다큐멘터리 제작을 도와준 남구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6.25전쟁 때 부산 서면과 남구에 주둔하며 유엔군, 민간인 등을 치료한 스웨덴적십자야전병원(스웨덴병원)을 다룬 다큐멘터리 ‘한국전과 스웨덴 사람들(The Swedes in the Korean War)’과 관련해 주한스웨덴대사관이 남구청장과 남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다큐멘터리는 지난 11월 8~13일 제8회 스웨덴영화제 기간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세 차례 무료 상영했다. 특히 8일 첫 시사회에 남구청장과 주한스웨덴대사관 엘레노어 칸텔 부대사(참사관), 60여년 전 스웨덴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한 국민 환자 등이 참석해 다큐멘터리를 관람했다.

남구는 지난 2016년 스웨덴 현지 다큐 제작팀이 인터뷰를 할 한 국민 환자들을 찾기 위해 촬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1년여 수소문 끝에 병원에서 치료받아 목숨을 구한 한국인 환자 10여 명을 찾아내는 등 다큐멘터리 제작을 도왔다.

다큐 ‘한국전과…’ 제작 도운 남구에

주한스웨덴대사관 감사 편지 보내와

스웨덴·한국 지상파 TV 방영 계획

첫 시사회 때 다큐멘터리를 보고 눈시울을 붉힌 칸텔 부대사는 편지에 “주한스웨덴대사관과 남구청의 이러한 유대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한편 4년여 만에 제작을 마친 이 다큐멘터리는 스웨덴과 한국에서 지상파 방송사를 통한 TV방영을 앞두고 있다.

■알립니다
 지난 11월 부산남구신문(제285호) 7면 ‘용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사업 개요’ 기사에 실린 ‘마을목욕탕

신축’은 공공목욕탕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족욕·단순 샤워 등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산 남구청 채널에 접속되며, 채널 추가하면 모바일 신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산타 같은 이웃 한국남부발전 3면

호꼬갈비의 아름다운 실험 5면

연극 ‘소막마실 가는 날’ 성료 4면

인생 갈무리가 주는 깨달음 11면